

“곡성군민이 뽑은 최고 시책은 ‘매일 만나는 소아과’”

郡, 2025년 6대 우수시책 선정

日 평균 31명 진료·만족 100%

계절근로자·만원 스마트팜 등도

65년 만에 부활한 ‘매일 만나는 소아과’(사진)가 곡성군민이 뽑은 올해 최고 시책으로 선정됐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2025년 추진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 1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2차 군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최종 6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선정 과정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대폭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군민들이 뽑은 ‘최우수 시책’은 ‘65년 만의 첫 소아과,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로, 지난 5월2일 보건의료원 내에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

년과는 의료 취약지인 농촌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획기적인 성과로 꼽힌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총 2천566건의 진료료가 이뤄졌으며 하루 평균 31명의 환자가 안정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를 달성할 만큼 학부모들의 호응이 뜨거우며,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정된 5개의 우수 시책 역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먼저 올해 3월부터 곡성·석곡·옥과농협 등 3곳을 통해 총 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사업이 일등 공신으로 꼽혔다.

해당 근로자들은 약 5개월 동안 멜론 정식, 감자·방울토마토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에 투입됐으며 이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월 임대료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청년 농업인 6명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 청년

들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래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가 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공선출하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블루베리 조기 재배와 장기 출하 체계를 정착시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오산·석곡·삼기 권역에 조성한 ‘농촌유학마을’과 지역 간 건강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우수 시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부서와 담당 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상대 곡성군수는 “이번 투표 결과는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군민들의 공감을 얻은 우수 시책들을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스마트팜 공동브랜드 ‘고흥이든’ 개발

‘고흥+이든(착한)’ 합성어로 신뢰 담아

상표 출원·포장재 적용…내년 본격 활용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 브랜드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달 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흥이든’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브랜드 개발은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보고회와 청년 농업인·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최종 브



랜드를 확정하고, 지난 10월23일 상표 출원까지 마쳤다.

브랜드 명칭인 ‘고흥이든’은 ‘고흥’과 순우리말 ‘이든(착한·어진)’의 합성어다.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고흥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믿음직스럽고 착한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마크(로고)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최첨단 생육 환경을 형상화해 안정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고흥 스마트팜 농산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고흥군은 이달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제8기 실습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포장재에 새 브랜드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사진>

내년부터는 브랜드 확산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대도시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팝업스토어’를 개설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소비자들이 ‘고흥이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산물=전남 고흥’이라는 공식을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이든’은 단순한 농산물 이름을 넘어 고흥의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스마트팜의 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최근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으로 구례를 찾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동계 훈련 최적지…지역경제 ‘활기’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등 담금질

27억 경제 효과…내년 3만명 목표

구례군이 국내 주요 스포츠팀들의 동계 훈련지로 활기를 띄고 있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체력 강화와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어 광주대학교 축구팀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2일간 구례에 머물며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현장을 찾은 선수단 관계자는 “구례군은 우수한 체육 시설 인프라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최적지”라며 “매년 믿고 찾을 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호평했다.

이러한 열기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2026년 1월부터는 초·중등부 축구 스토브리그를 필두로 씨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과 대회가 잇따라 열려, 학교 운동부부터 실업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단이 방문할 예정이어서 지역 상권은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실제 구례군은 올해 약 3만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들이 숙박업소와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며 창출한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만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구례군은 최근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 전지훈련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6년 전남체전 개최를 앞두고 체육 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통해 훈련 여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연인원 3만5천명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흥군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연중 운영

장흥군은 17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은 물론,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과세 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을 담당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돕는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군이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대행해 준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 내년도 성인문해교육 마을 모집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화순군은 17일 “내년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은 어르신들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단순히 한글과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기초 교육을 넘어,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사용법 등 디지털 생활 문제 교육까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배움을 희망하는 학습자가 5인 이상 구성돼 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 마

을이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기한 내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구정책팀과 평생교육팀(061-379-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마을별 학습 환경과 수요를 토대로 내년도 교육 예산과 강사 배치 등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순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배움의 열정이 있는 마을과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1월 개원

용천 예술병원 내 산모실 15개

감면 대상 이용료 70% 할인도

여수시가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문을 연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용천동 예술병원(사진) 내에 조성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내년 1월 정식 개원한다.

이번 8호점은 지난 2023년 전남도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40여원을 투입해 마련됐다. 내부에는 산모실 15개실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교육실, 피부관리실, 카페 라운지 등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한 최신 편의 공간을 갖췄다.

이용 대상은 임신 28주 이상 임신부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전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감면 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이다.

예약은 현재 전화로 진행 중이며, 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전남아이톡’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예술병원(061-655-3535, 내선 6)을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접수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산모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연말 1만원 지역상품권 환급 행사

23-25일 3만원 이상 구매시

담양군은 17일 “연말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페이백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양읍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와 담양상설시장, 다미담예술구 등 관내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구역에서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1만원 상당의 담양사랑상품권을 즉시 돌려받는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해동문화예술촌 1층 세미나실과 담양문화회관 로비 등 두 곳에 마련

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단, 재발행된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준비된 물량이 동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연말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페이백 행사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